

안녕하세요, swkmiki123입니다.

**이 글은 이과생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과탐공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쓴 글입니다. 매우 긴 글입니다. 30분 정도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주세요.**  
어쩌면 이 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과탐 공부 패턴과 마음가짐을 완전히 뒤바꿔 성공적인 2022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글이 될 수 있기에,  
적어도 오늘만큼은 과탐공부를 하는 대신,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을 반복해서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1. **고3 분들**]은 고2 모의고사 때 받은 등급에 상관없이 **반드시 읽어야 할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오직 수능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공부한 경험'이 없을 테니, 제 글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을 잘 잡으세요.

[2. **재수생 및 n수생 분들**]은 작년 평가원시험의 평균등급에 상관없이, 제가 쓴 내용을 추려가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글을 시작하게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영수는 성적을 턱걸이 1등급대까지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과탐도 성적을 턱걸이 1등급대까지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탐은 **국영수보다는** 성적을 턱걸이 1등급대까지 올리기가 **쉽다**는 건 인정합니다.

적어도 I 과목에서만만큼은 아무리 현역이라도 제대로 공부한다면,

단기간 그래도 최소 5~6개월정도는 걸려요 에 두 선택과목 모두 턱걸이 1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탐만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다음,

**현역이든 재수/n수생이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똑같습니다.**

재수를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재수를 막 시작할 시기에는

현역 때 외우고 있었던 기본적인 수능개념 중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11월부터 3달 동안 놀기만 하지는 않으신 분들이나 쌤3수 이상 정도는 하신 분들은 기억이 좀 나긴 합니다ㅋㅋ

**재수생들도 똑같이 빠르면 1월부터 시작해서 6평 전까지 두세 달 동안 처음부터 수능개념을 다시 다 공부해요.**

재수생 3분의 1정도는 오히려 현역 때보다 과탐성적이 떨어집니다.

n수생도 예외가 아니구요.

그래서,

**현역 분들은** 절대로 재수생을 한 단계 위의 그룹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학기 초 공부가 새롭더라도 꾸준히 하시고,

**재수생 분들은** '작년에 경험을 한 번 했으니 올해는 달라지겠지?'와 같은 근거 없는 생각 물론 이러한 않겠지...만?은 버리세요.

작년에 경험을 한 번 했으면 뭐 합니까.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은데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께서 4개월 전 수능의 숨막히는 현장감을 벌써 잊고 '편하게' 자습만 하고 계신다면...

물론 1년 동안의 전반적인 점수는 재수생 및 n수생들이 더 높을 것입니다. 경험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탐공부를 1년 더 했다고 해서 수능과탐성적이 현역 때보다 잘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재수생과 n수생도 나름대로의 불안감이 반드시 있어요.

'작년처럼 똑같으면 어떡하지?...', '작년보다 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하는 공부법이 맞는 건가?...'

처럼요. 저도 재수할 때 이랬는데요 뭐.

2021수능을 치를 수험생 누구나 다 미래 수능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씩 느낍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잊으세요. 불안에 쏟는 시간은 도움이라곤 전혀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공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역이든 재수생이든, 여러분들의 수능점수는 9월 이후부터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또 9월에 공부하는 내용은 6월 이후부터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따라 그 수월함이 결정되고, 6월에 공부하는 내용은 2월부터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따라 그 수월함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베이스를 튼튼히 갖추셔야 합니다. 기본을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할 때만큼 집중하고 시간투자를 하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요.

결국, 과탐성적을 좌우하는 건

1. 수능때까지 지속돼야 하는(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해야 하는) 학생의 공부에 대한 의지,
2. 수능때까지 **ㄹ**같은 생활을(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되는 **ㄹ**같은 생활을) 끝까지 버텨내는 학생의 인내심,
3. 쉬운 공부가 아닌, 버겁고 힘든 양질의 공부를 지속하는 습관,
4. 수험생활 동안 쌓이는 자신감

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1. 공부에 대한 의지입니다. 공부할 의지부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겨울/봄에는 의지가 충만하죠?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그 의지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ㅎㅎ

또한,

[과탐성적이 1년 내내 2,3,4등급(을 왔다갔다하는)인 친구들]의 특징 물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공부방법] 또는 [본인의 의지 및 지속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꼴이 됩니다.

공부방법은 정보력으로, 의지와 지속력은 동기부여로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쓰는 이 글은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겠지만,

정보력을 제공해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쪽부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을 미리 정리해드리면,

- A. swkmiki123의 고2~현역수능까지 과탐을 공부한 방법 (잘못된 방법)
- B. 수능과탐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월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올바른 방법)
- C. 6평 이전까지 과탐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방법 및 마음가짐 (올바른 방법)
- D. 평가원 시험 직전 [모의고사형태로 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 (올바른 방법)
- E. swkmiki123의 재수 이후부터 과탐을 공부한 방법 (올바른 방법)

과 같습니다.

제목들을 읽어보고 알아차리셨겠지만,

A와 E에서는 제 이야기를 알려드릴 것이고,

B. C. D.는 제 경험을 통해 도출해 낸 과탐공부를 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때, 제 이야기를 A와 E로 나눈 기준은 현역 수능 이전과 그 이후가 되는데,

현역 수능 이전의 이야기를 담은 A에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길래 수능을 망쳤는지를 중점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뒤의 B. C. D. E. 내용들과 비교해보세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요.

1년 동안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문제집을 푸는 방법, 마음가짐과 태도와 같은 심리적인 요소 등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이 수험생활이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글로 형용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검토와 수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은 수능과탐성적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잘못된 공부를 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좋은 글이 될 것이니, 이 글을 앞으로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